

산단 입주 문턱 낮춘다…첨단·신산업 유치 ‘본격화’

산자부,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혁신 성장거점 전환

업종 범위 확대 불합리 제도 손질…문화·편의시설 확충도

정부가 산업단지 입주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첨단·신산업 유치에 속도를 낸다.

제조업 중심으로 고착됐던 산업단지 구조를 손질, 신산업 투자와 인재 유입이 가능한 혁신 성장 거점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와 지식 산업센터의 입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산업단지 관리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첨단·신산업 입주 확대와 함께 문화·편의시설 확충이 핵심이다.

먼저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할 수 있는 업종 범위를 넓혔다.

지식·정보통신산업은 기존 78개에서 95개로 확대되고 첨단업종도 85개에서 92개로 늘어난다.

그동안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 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이 늘게되면서 신산업 입주 촉진 등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첨단업종으로 분류되면 수도권 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전기·화물자동차와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등이 새롭게 첨단업종에 포함돼 투

자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기업 부담을 키워왔던 불합리한 규제도 손질된다.

제조업체가 제품 설치·시공을 위해 별도로 등록해야 했던 전기·통신·소방 공사업은 앞으로 공장 내에서 함께 등록할 수 있다.

산단 밖에 별도 사무실을 두지 않아도 돼 비용과 행정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산업단지를 ‘일하는 공간’에서 ‘머무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된다.

공장 부대시설로 카페와 편의점 설치가 명시돼 별도의 용도 변경 없이 산단 내 편의시설을 둘 수 있게 된다. 입주기

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도 오피스텔 입주가 허용돼 주거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내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했다. 하지만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문화·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이를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하고 산단 내 녹지구역이나 폐기물 매립 종묘 부지에도 문화·체육시설

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산단을 지역과 단절된 공간이 아닌, 지역 생활권의 일부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각종 통지와 승인은 우편 대신 전자 방식으로 전환되고, 비제조업 기업의 사업 개시 신고는 비대면 확인도 허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첨단·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성장하고,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탑솔라(주)·현대건설, 재생에너지 공급 구축 힘 모은다

전력공급계약 협약…설비용량 1.5GW 대형원전 1기 용량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위 기업인 탑솔라(주)(회장 오형석)가 현대건설과 손잡고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에 나선다.

탑솔라는 최근 회사 본사에서 현대건설과 ‘재생에너지 전력공급계약(PPA)’ 체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형석 탑솔라 그룹 회장과

백상현 현대건설 인프라투자 개발실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탑솔라가 현대건설에 공급 예정인 태양 광 전력의 총 설비용량은 1.5GW다. 이는 대형원전 1기 발전 용량에 맞먹는 규모이며, 단일 기업 간 직접 전력 거래로는 사상 최대다.

탑솔라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개발·시공·운영 관리(O&M) 역량을 입증했으며 ‘개발·금

융-EPC-O&M’으로 이어지는 독보적인 재생에너지 벤류체인을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발전율을 다변화하고 민간 주도의 자발적 PPA 생태계 확립에 앞장 설 계획이다.

오형석 탑솔라 그룹 회장은 “국내 건설 업계 리더인 현대건설과 함께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탑솔라의 우수한 태양광 발전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의 RE 100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대건설-탑솔라, PPA

◆ 일시 : 2023년 1월 19일(월)

◆ 장소 : 탑솔라



탑솔라는 최근 회사 본사에서 현대건설과 ‘재생에너지 전력공급계약(PPA)’ 체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기아, 소형 SUV ‘더 뉴 니로’ 디자인 최초 공개

4년 만에 상품성 개선 모델

3월 중 판매가격 결정·출시



기아는 소형 SUV 특유의 강인함을 강조하고, 미래지향적 조형의 신규 18인치 알로이 휠이 역동적인 느낌을 더한다.

전면부는 수평·수직적 라인을 강조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주간주행등이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상을 주며, 입체적인 불规则의 전면 패널 및 정교한 라인과 조화를 이뤄 감각적인 청인상을 완성한다.

측면부는 매끄럽게 정돈된 차체 표면 위에 적용한 훨아치 클래딩과 도어 하단 가

니쉬가 SUV 특유의 강인함을 강조하고, 미래지향적 조형의 신규 18인치 알로이 휠이 역동적인 느낌을 더한다.

후면부는 수평적이면서 과감한 면의 테일게이트가 안정감과 넓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주며, LED 리어 콤비네이션램프

그래픽이 차체 조형과 자연스럽게 연결돼 차체 폭을 강조하면서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리듬감을 연출한다.

더 뉴 니로의 실내는 ‘제작된 강렬함’을 테마로, 기존 디자인 정체성을 계승하면서 날렵한 선과 정밀한 비례를 바탕으로 완성도를 높여 한층 향상된 공간감을 제공한다.

각각 12.3인치의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합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에는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슬림하면서 수평적으로 펼쳐진 대시보드가 공간감을 극대화한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제네시스, 다보스포럼서 ‘GV60 마그마’ 전시

GMR-001 하이퍼카 차량 등 럭셔리 고성능 모델 공개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19일(현지시간)부터 23일까지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 아메른 호텔에서 ‘GV60 마그마’와 ‘GMR-001 하이퍼카’ 차량을 전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보스포럼은 세계 각국의 고위급 정·계계 및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해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간 협력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국제회의다.

AI, 경제·통상 정책, 에너지 안보 등 이의제로 다뤄질 이번 포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여행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전 세계 3000 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우수한 퍼포먼스와 정제된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모델인 ‘GV60 마그마’는 제네시스가 진정한 럭셔리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성과 의지를 담고 있다.

‘GMR-001 하이퍼카’는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팀이 올해부터 실제 경기에 참가할 차량의 디자인 모델로, 제네시스의 모터스포츠 분야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열정을 반영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